

도심 산책·와인 ‘핫플’…늦가을 나들이 가볼까

서울 동쪽의 너른 지역에 자리잡은 광진구는 한강과 아차산을 품에 안고 있는 도심 트레킹의 명소이다. 또 한 자양시장과 독섬한강공원 등 소풍과 다양한 힐링 테마를 갖춘 시티투어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광진구가 개발한 모바일 앱 ‘광진나들이’의 스텝 투어 코스를 이용하면 이동경로와 주요 명소의 음성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늦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광진구의 도심 나들이 명소를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추천했다.

모바일 앱 ‘광진나들이’ 이용해 스텝 투어 아차산 자락길, 동행숲길·생태공원 등 조성
서울상상나라서 아이들과 다양한 전시물 체험

●가벼운 트레킹과 두벽이 역사여행

아차산 자락길은 산 남쪽 영화사에서 출발해 아차산 어울림광장, 아차산 동행숲길을 거쳐 아차산생태공원에서 마무리하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영화사는 672년(문무왕 12) 신라 의상대사가 용마봉 아래에 창건한 사찰로 전해온다. 영화사에서 내려와 아차산 등산로 입구로 올라가면 잔디마당인 아차산어울림광장이 보인다. 어울림광장 위쪽부터 평강교까지 820m 구간에는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도 불편 없이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인 동행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어울림광장 바로 아래 아차산 생태공원에는 연꽃과 수련 등의 수생식물이 자생하는 습지원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빅토리아 수련을 이곳서 볼 수 있다.

광나루는 고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사 작전과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나루터였다. 역사 깊은 광나루터를 중심으로 한 걷기코스가 ‘광진나들이’ 앱에 있다. 상부암석보살입상-광나루 낭만의거리-광진교-광진교8번가 순으로 걷는 게 추천코스다. 광진정 보도서관 앞에서 광장동 구 한강호텔까지는 광나루 낭만의 거리가 조성돼 있다.

제방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옛 나루터 뚝단배를 형상화한 조망 데크와 물결 모양 파고라, 테이블과 벤치를 놓았다. 광진교에는 한강 야경을 감상하기 좋은 포인트에 안내판과 전망 데크,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아차산 생태공원 위쪽 도로에서 내려다본 습지원. 독섬한강공원 서울생각마루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랜테리아 휴식 공간. 어린이를 위한 100여 개의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상상나라 전경(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1 서울관광재단

교각 아래에는 전망 쉼터이자 문화공연 시설인 광진교 8번가가 있다.

●아이들과 도심 숲속 거닐기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73년 개원해 역사가 깊은 만큼 아릅답기로 자란 나무가 숲을 이뤄 산책을 하기 좋다. 구의문-어린이숲속캠핑장-전래동화마을-순명비 유강원 석물-서울상상나라-메인 산책로-놀이동산-분수대-후문으로 이어진 코스가 아이들과 걷기 좋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과 비교적 한적한 숲속 산책로, 단풍이 고운 메인 산책로를 두루 돌아볼 수 있다.

걷기 코스에서 만나는 서울상상나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박물관이자 복합체험 놀이공간이다. 100여 개의 체험식 전시물이 설치돼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단, 서울상상나라 사이트에 관람 전일까지 온라인 예약해야 입장할 수 있다. 이 코스에서는 구의문 근처 서북면옥을 빼놓을 수 없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냉면 명소다.

●와인마니아들의 핫플이 이곳에

독섬한강공원은 산책부터 수상 레포츠, 인공암벽, 피크닉, 유람선, 낚시, 서울생각마루 관람 등 체험거리가 다양하다. 서울생각마루(독섬자벌레)는 독섬유원지 역사 내 3번 출구와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카페와 3층 대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가이 있는 독서 공간과 테라스가 있는 휴식 공간에서는 한강 뷰를 내려다 볼 수 있다.

독섬유원지지역에서 약 1km 떨어진 자양전통시장도 볼거리가 많다. 레트로 트렌드를 반영한 옛날 다방 콘셉트의 자양다방과 와인 애호가들의 떠오르는 성지인 새마을구관장 내 와인 매장이 인기다. 많은 이들이 찾는 만큼 현재는 자양시장과 골목 사이사이 많은 와인 바가 생겨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 출시 10주년… 더 가볍고 따뜻해졌다

올해 스탠다드·오리진·프리미어 3개 라인 선풍
경량성·기동성 초점…레드컬러 한정판으로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의 대표 상품 안타티카가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이했다. 안타티카는 코오롱스포츠가 2011년 남극 운석 탐사단 대원들의 피복 지원을 계기로 개발한 헤비다운이다. 2012년 가을·겨울 시즌에 첫 출시된 이래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자리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될 정도로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안타티카는 스탠다드, 오리진, 프리미어 3개 라인이 각기 다른 특징으로 출시된다. 이 중 오리진 중 레드 컬러와 프리미어 라인은 한정 수량이다.

안타티카 스탠다드 라인은 신체 부위별로 체감하는 추위가 다른 점을 반영해 개발됐다. 코오롱스포츠와 서울대의류학과가 공동 연구했으며 서벌 마네킹(의복의 보온성을 측정하기 위한 인체 모형)을 이용해 부위별 다운 양을 최적화했다.

안타티카 오리진은 남극의 극한 추위를 이겨낸다는 안타티카의 본질에 더욱 집중했다. 올해 코오롱스포츠가 남극 극지연구소 대원들에게 후원하는 라인으로, ‘경량성’과 ‘기동성’에 초점을 맞췄다. 고어텍스 인피니움 2L(레이어) 소재를 사용해 방풍, 투습, 발수 기능을 극대화했다. 레드, 블랙, 블루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이 중 레드 컬러는 2012년 첫 출시한 안타티카와 같은 컬러로 한정판 출시된다.

안타티카 프리미어는 로로피아나 스텝시스템을 소재를



▲안타티카 프리미어

에 제공한 피복을 대표하는 컬러이자 안타티카를 대표하는 컬러이기도 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사용했다. 이 소재는 최고급 소재를 자랑하는 로로피아나사가 개발한 발수 공법이 적용돼 물 소재임에도 비에 젖지 않는다. 식물성 재생 원료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다.

코오롱스포츠는 안타티카 오리진 레드 컬러에 한해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최초로 NPT(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을 적용했다. 카카오킴(ki)을 통해 디지털 보증서를 제공한다. 레드 컬러는 코오롱스포츠가 남극 극지연구소

레저

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15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ESG 등에 과감 투자…韓섬유판선 질적 성장 이끌어



비와이엔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사진)이 1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섬유업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강 회장은 48년간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분야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ESG, 저탄소·친환경 생태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에 과감히 투자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한국 섬유패션시장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회장은 1973년 등산 용품 및 장비 업체 ‘동진’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를 키워내며 척박했던 국내에서 아웃도어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1세대 기업인이다. 블랙야크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 최대 규모 스포츠용품 박람회 ISPO에서 단일 브랜드로는 누적 집계 기준 총 26관왕으로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하는 등 전 세계 26개국에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강 회장은 “역동적인 활동을 돕는 혁신 제품을 제공해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고, 그들의 도전하는 삶과 함께 한다는 사명감으로 48년 간 아웃도어 외길을 걸어온 노력을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대표 아웃도어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조성 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제주드림타워, 호텔 영업 월간 첫 흑자 기록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사진)가 지난해 12월 개장 이후 월간 기준 첫 흑자를 기록했다. 제주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10월 리조트 내 호텔(그랜드 하얏트 제주)이 매출 82억

원, 영업이익의 4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호텔 식음료 파트가 29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 흑자전환에 큰 기여를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1월 객실 점유율도 90% 이상을 기록해 29일 두 번째 타워가 오픈하면서 1600개 전 객실이 가동되면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투어, 특별 기획상품 ‘하나 Original’ 출시



하나투어는 특별 기획상품 ‘하나 Original’을 내놓았다. 스테이, 어드벤처, 조인, 에코·프렌들리, 제주

스웨드 스페셜 에디션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머무는 공간이 특별한 여행’부터 ‘최상의 럭셔리 여행’까지 각 키워드에 맞춰 특별한 일정으로 이루어진 상품이다. 하나투어가 1일부터 TV CF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핀란드 오로라 헌팅’, ‘대만 아쿠아리움 숙박’, ‘호주 럭셔리 감성 글램핑’(사진) 등이 ‘하나 Original’ 상품이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2일(금) 음력: 10월 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위험이나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대강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남이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는 날이다.	아무리 자신이 실력이 있어도 주변의 시기가 따르니 남을 따르고 그 상황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마음으로 상대를 돕는다는 자세로 새로운 상황에 뛰어드는 것이 자신을 위해 행복하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 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살펴서 중요하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매사가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기분이다. 하지만 단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니 자포자기에 빠지지 말라.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협조에 마음을 써라.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부인이나 자식, 근친자로 인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밖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하라.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0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